

# 동방신기 3인 독자행보 본격화..12일 팬미팅

입력 2009. 12. 6. 16:53 · 수정 2009. 12. 6. 16:53

---



동방신기 3인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팬미팅을 통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간다.

동방신기 3인은 12월 12일 오후 5시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사랑나눔 '스마일 어게인'(Smile Again) 행사를 통해 팬들과 만난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달 21일 SM엔터테인먼트가 행사를 보이콧 MAMA 시상식에 출연해 본격적인 독자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시아준수는 수상소감을 전하며 "이 상은 멤버 한명의 노력이 아니라 다섯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믹키유천은 "오늘처럼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간절하게 느낀 적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웅재중은 "혹시나 보고 있을 두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2일 동방신기 세 멤버가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최근 법원 결정과 관련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별 활동을 허락했을 뿐 세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mailto: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